

# 마 음 가 짐

광주전남지부 건강관리과 정 일 숙

개나리 진달래 배꽃 복숭아꽃 등등... 인고의 아픔을 참아 가면서 가냘픈 꽃망울을 터뜨리는 어느 봄날.

검진 버스 차창 밖 양변으로 보이는 산야가 몹시 부산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넉넉한 대지의 입김이다. 일과를 시외 출장에서 시작하는 오늘. 다소곳이 떠오른 따사로운 햇살이 잔칫날 흥을 돋우는 화려함과 흥겨움같이 등근산과 움푹한 들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해야 할 일과 마음 가짐을 새롭게 다짐해 본다.

먼저 직업의식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검진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직장에서 해야할 의무라는 강박 관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생활인에게 건강을 주면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 검진이라면 우선 남을 위한 건강에 앞서 본인의 건강이 먼저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이 보람된 일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건강의 고마움을 알아야겠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검진자로서 아직까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건강유지에 소홀히 하는 분들에게 귀뜸하고 싶다. 짜여진 일정대로 사업장에 들어가 “건강 진단 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유쾌하지 못한 목소리로 뭐하러 왔느냐? 지금 일이 한창 바쁜데 일감이 밀려 지금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와달라고 귀찮은듯 얘기한다. 그 분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생활이 먼저이다. 현재는 건강하기 때문에, 당장 불편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건강 진단을 뒷전에 미루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라는 평범한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귀찮은 존재의 주인공이 된 우리 검진자였다면 한번쯤 반성해 본다. 혹시 이전에 검진할 때 성실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하고.

세째번으로는 작은 나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자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 진단이 끝난후 우리가 보내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난 후 혈압이 높으니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당뇨가 있으니 음식물과 마음 가짐을 새롭게 가져야겠다. 또 폐결핵 초기의 경우 일찍 발견하게 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나을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돌아설때, 그리고 일년에 한번쯤은 정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수검자 측의 자세에 보람을 느낀다. 내심 그들에게 빠른 쾌유를 진실로 빌며 또한 소리없는 웃음으로 일년을 보내게 된다. 시일이 흐르뒤 검진 결과의 이상자들이 점진적으로 밝은 빛의 미소로 우리를 찾아와 고맙다고 말씀 하실때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 그분들 뒤에서 일하는 우리는 끝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보리라.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겠다. 몇몇 건강의 인식 부족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더 말벗고 심혈을 기울여야 겠다. 끝으로 건강한 신체적 유지를 위해 충분한 영양과 일, 휴식의 조화, 기본적인 건강 지식으로 능률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자유로운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하자.